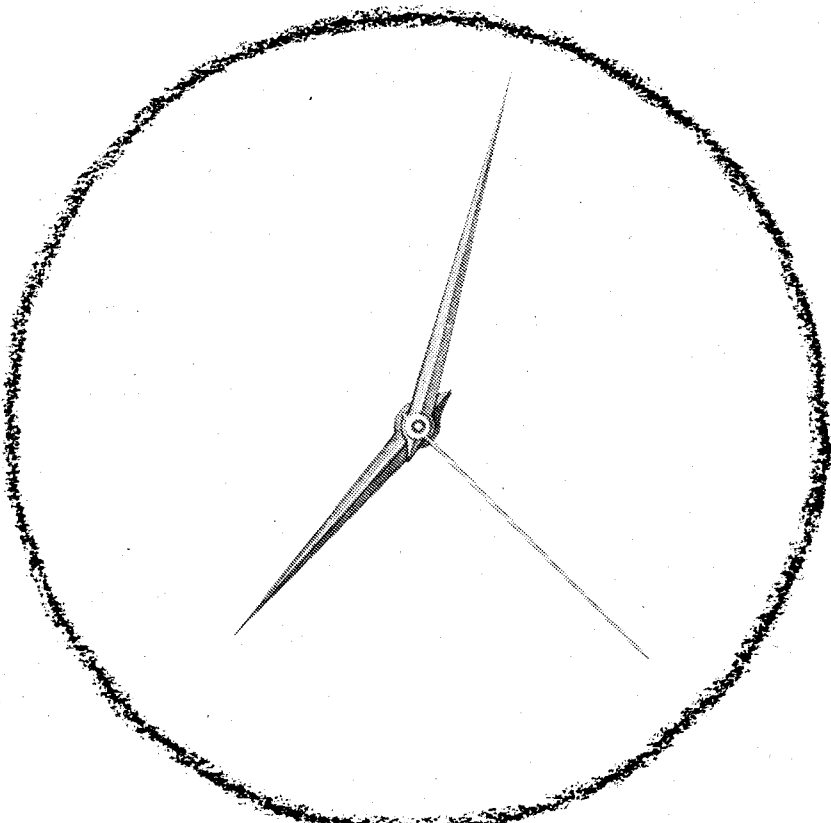


반동적인 현정세 돌파구 제시

〈편집자註〉

지금 몇 視?



 **동양시멘트**